

# 레바논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Chris Yessayan (레바논 국가고용청 기술규격·자격국장)

## ■ 서론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정 및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아랍국가 레바논도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레바논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전 레바논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레바논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방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레바논 경제는 줄곧 자유방임주의 노선에 따라 운영됐으며, 최소한의 국가 개입, 미비한 제도와 관료체제, 질 낮은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높은 민간부문 의존도, 자유무역, 그리고 특히 레바논 내전 이후의 지대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가 특징이다. 또한 레바논의 연간 경제성장과 통화안정 유지는 높은 이율로 고수익을 올리는 금융부문과 레바논 이민자 및 관광객으로부터 대량 유입되는 외화 송금액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0월에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실 레바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 송금액 감소, 심각한 정부 부패 및 국가부채 악화 등과 결부된 구조적 무역 적자의 형태로 오랫동안 성장 둔화를 보여왔다. 이는 외환보유고의 큰 감소와 함께 수십억 달러의 인출 및 해외 유출로 이어지며 금융부문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했고, 완전한 금융 붕괴를 피하기 위해 결국 정부는 금융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레바논은 사상 최초로 외채 불이행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레바논

중앙정부는 공공지출과 사업 재정을 주로 공공부채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금융업과 관광업을 주요 토대로 한다. 설상가상으로 이웃 국가인 시리아의 내전으로 레바논은 중요한 전략적 무역 파트너를 잃게 되었고, 2011년 이후 15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비용이 레바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현재 레바논은 전 세계에서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레바논의 GDP 성장률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6.7%를 기록했고, 최근 추산에 의하면 2020년 GDP는 약 2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 대비 레바논 파운드의 약화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졌고 가계 대부분의 구매력이 크게 하락했다.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 사이에는 14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게다가 레바논은 세계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0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71%에 달했다.

실업률과 빈곤율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베이루트에 있는 한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sup>1)</sup>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동안 레바논의 실직자 수는 약 8만 명이며 레바논 인구의 55%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다. 한편 레바논 사회부의 레바논 위기대응계획(Lebanon Crisis Response Plan) 총책임자는 레바논 인구의 빈곤율이 60%를 넘었으며 극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비율도 25%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230만 명이 넘는 레바논 국민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의미인데, 레바논 전체 인구의 95%가 레바논 파운드에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과 환율 붕괴 상황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 ■ 레바논의 코로나19 상황

레바논의 코로나19 최초 확진 사례는 2020년 2월 21일에 공식 보고됐다. 3주 후인 3월 15일에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국과 슈퍼마켓을 제외한 모든 업소와 기업에 전면 봉쇄 및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 베이루트와 북부 도시 트리폴리의 빈민지역에는 일당

1) Lebanon24.com(2020.11.30), "ألف موظف انضموا لنادي العاطلين عن العمل.. تحذير من أعمال شغب انفجار 80 اجتماعي", <https://www.lebanon24.com> (검색일: 20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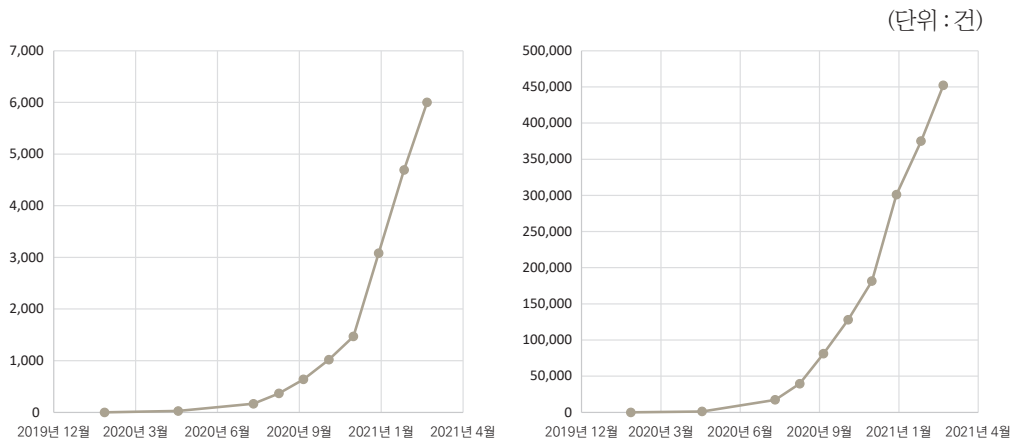
은 물론 시간당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아 일부 상점은 정부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이어갔다. 4월 27일에는 레바논의 유일한 공항인 베이루트 국제공항의 봉쇄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5단계 계획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폐쇄했던 공항의 운영을 7월 1일 재개하여 가동률 10%를 유지하면서 상업비행을 수용할 예정이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무기간 없이 PCR 검사를 거치도록 했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3월 19일에 공항이 폐쇄되기 전,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국민에게 4일의 기한을 주었고 모든 해외 거주 국민의 귀국을 위한 철수 계획을 4월 5일부터 여러 차례 실시했다. 입국자들은 PCR 검사와 함께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레바논 정부가 실시한 초기 대책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었지만 공항 운영 재개 이후 1일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했다. 이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봉쇄의 가능성도 예견되었으나 열악한 경제 상황과 대량 실직 위험으로 인해 강화된 봉쇄정책 시행에 제약이 뒤따랐다. 2020년 8월 4일에는 베이루트항의 충격적인 폭발사고로 인해 220명이 사망하고 6,50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약 30만 명이 집을 잃었다. 레바논 경제의 생명선으로 여겨지던 베이루트항의 폭발로 주요 곡물 저장고가 파괴되었고 많은 의료시설과 병원이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보건부문의 코로나19 대처능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직후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1일 확진자 수가 잇따라 폭증하면서 급기야 전국 모든 병원에 남은 병상이 거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달러 부족 위기로 보건부문이 주요 의료장비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2021년 1월 7일, 레바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병원에 숨 고를 시간을 주기 위해, 마침내 전국적으로 25일간 엄격한 봉쇄 및 야간 통행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봉쇄조치가 연장되고 일부 억제책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레바논은 국가 총동원 상태에 있으며 1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총동원 상태는 향후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레바논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45만 2천 명과 6천 명이 넘으며 35만 3천여 명이 회복한 것으로 보고됐다.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다수는 고령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림 1]에서 코로나19가 발병 첫 6개월 동안에는 꽤 효과적으로 확산이 억제되다가 8월 4일 베이루트항 폭발 이후로 급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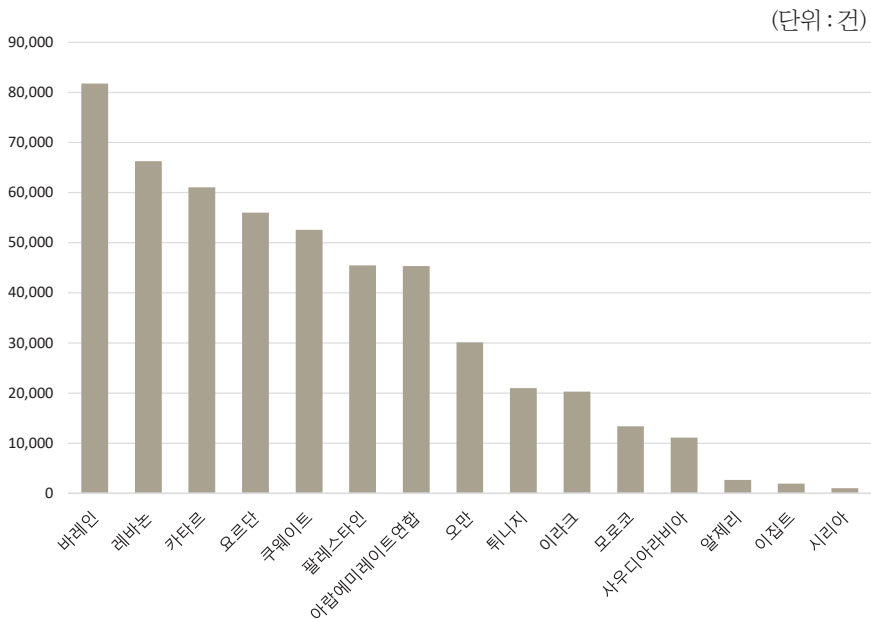
히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가정과 쇼핑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기간에 통제불능 수준으로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국민의 책임감과 사회적 의식 부

[그림 1] 레바논 코로나19 사망자(좌) 및 확진자(우) 수



자료 : Humanitarian Data Exchange, <https://data.humdata.org> (검색일 : 2021.4.3).

[그림 2] 각 아랍국가의 인구 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2021년 3월 25일 기준)



자료 : Humanitarian Data Exchange, <https://data.humdata.org> (검색일 : 2021.4.3).

죽도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아랍국가의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를 단순 비교하면, 레바논 사회가 코로나19에 얼마나 취약하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2021년 3월 25일 현재 각 아랍국가의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레바논은 6만 6,263건으로 전체 아랍국가 중 (국토 크기가 레바논의 1/10 수준인 바레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레바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며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식당, 영화관 및 유흥시설은 레바논 사회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된 상태이다.

## ■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역 부문(건설, 부동산, 소매업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과 같이 지역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포함)은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부문이었다. 2019년 총 GDP에서 비교역 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76%에 이를 정도로 레바논의 비교역 부문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생산부문의 산업·제조 기업은 통화 위기, 레바논 파운드의 평가절하, 자금 이동에 대한 대대적인 제약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수지를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우 비싸게 구입해야 했으며 원자재 구매 비용도 큰 부담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일시 영업중지는 고전하던 기업들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가한 셈이다. 내전 이후 정부 정책은 대체로 은행 및 금융서비스와 부동산부문에 맞춰져 있었고 제조업과 농업 부문은 늘 뒷전이였다. 금융 위기로 제조기업의 불안정성은 심화되었고 그중 일부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심지어 다른 업종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sup>2)</sup>

〈표 1〉을 통해 레바논의 경제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는 2019년 기준으로 작성된 가장 최신 자료이다.

2) 여기서 제조업은 식품, 섬유, 도자기, 양모 등을 제조하는 경공업을 말한다.

<표 1> 레바논 GDP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9년)

(단위 : %)

산업 분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업 분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 및 임업	2.01	도매 및 소매업	10.94
축산업 및 어업	1.07	차량 유지보수 및 수리	1.12
광업 및 채굴업	0.30	운송업	3.19
식품 제조업	2.10	숙박·음식업	3.00
음료 및 담배 제조업	0.97	정보통신	1.90
섬유 및 피혁 제조업	0.34	금융서비스	9.14
목재 및 제지 제조업, 인쇄업	0.56	부동산업	16.39
화학물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0.85	전문서비스	3.62
비금속 광물 제조업	0.51	행정서비스	2.74
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	1.61	공공행정	11.81
기타 제조업	0.47	교육	8.26
전기	1.58	보건 및 사회서비스	3.75
수자원 공급 및 폐기물 관리	0.96	개인 및 지역사회서비스	3.05
건설업	2.58		

자료 :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Tables 2004-2019”, <http://www.cas.gov.lb/>  
(검색일 : 2021.4.2).

봉쇄기간 동안 소매기업과 상점은 모두 휴업하고 중소기업 상당수의 운영은 무기한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노동자가 실직했으며 일부는 봉쇄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하거나 급여의 일부만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 급여가 그대로 유지된 이들은 레바논 파운드르 급여를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에 의하면,<sup>3)</sup> 2020년 3월에 실시된 최초 봉쇄조치로 인해 특히 빈곤선 이하에 속해 있던 이들과 비공식 또는 계절적 부분의 노동자를 포함한 레바논 국민 수백만 명이 기아 위기에 직면했다.

베이루트에 위치한 UN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3) Human Rights Watch(2020.4.8), “Lebanon : Direct COVID-19 Assistance to Hardest Hit”, <https://www.hrw.org/> (검색일 : 2021.4.2).

Western Asia : 이하 “ESCWA”)의 최근 보고서는<sup>4)</sup>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레바논의 민간부문 매출이 2019년보다 45% 감소하면서 민간부문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매출은 해당 기간에 47.8% 감소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운송업(-46.6%), 건설업(-45.2%), 제조업(-44.7%), 숙박·음식업(-41.2%)의 매출도 크게 감소했다.

베이루트 공항과 국경이 수개월간 폐쇄되면서 GDP 하락과 외화 유입 감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레바논 경제의 병목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레바논은 서비스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매년 많은 수의 관광객이 서비스부문의 중요한 고객으로 방문한다. 사실 관광객 대부분은 오래전 해외에 정착해 여름휴가철이 되면 고국인 레바논을 방문하는 레바논 이민자들이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레바논이 크게 의존하던 관광업이 파탄에 이르렀다. 게다가 고고학적 유적지와 함께 숙박·음식업 부문도 완전히 휴업 상태였고, 봉쇄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들어 운영 비용이 더욱 늘어났다. 환대산업의 경우에도 공식행사, 지역 및 국제회의, 대규모 사교 모임, 결혼식 및 기타 축하 행사들이 축소·연기 또는 전면 취소되고 봄여름 성수기 영업에 피해를 입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베이루트항 폭발사고로 호텔 163개소, 음식점 2,040개소, 가구가 구비된 아파트 40채, 택시 250여 대가 부분 또는 완전 파손되었다. 음식점주 연합에 의하면,<sup>5)</sup> 봉쇄기간 동안 음식업 부문의 손실액은 월 5억 달러가 넘는다. 레바논 관광업체 단체의 사무총장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sup>6)</sup> 관광부문의 2020년 매출은 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2019년 매출인 60억 달러와 크게 비교된다.

대외무역을 살펴보면, 2020년의 무역적자는 이전보다 감소했다. 코로나19로 2020년 수출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팬데믹이 수입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2019년에 비해 2020년 수입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20년의 총수입액은 202억 267만 5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388억 8,011만 5천 달러와 2018년 403억 7,546만 4천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한 금액이다. 이러한 수입액 감소는 국제 무역과 여행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가 멈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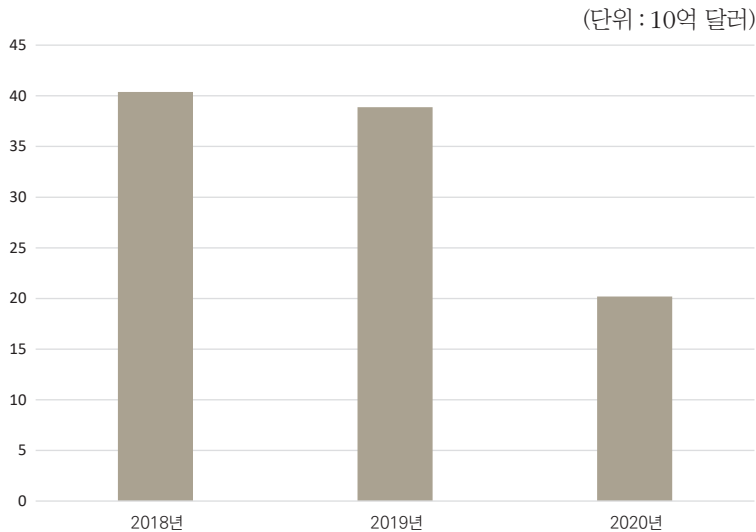
4) ESCWA(2021.2.10), *Lebanon's Formal Private Sector: the Bitter Reality of 2020*.

5) Elnashra.com(2020.4.9), “نقيب أصحاب المطاعم: القطاع السياحي اللبناني يخسر 500 مليون دولار شهري”, <https://www.elnashra.com> (검색일: 2021.4.3).

6) 위와 동일.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은 레바논의 2020년 수입액이 지난 2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림 3] 레바논의 연도별 총수입액(2018~2020년)



자료 : 레바논 세관 데이터베이스, [http://www.customs.gov.lb/Trade\\_Statistics/Yearly/Country\\_HS\\_Results.aspx?Report=By\\_Country](http://www.customs.gov.lb/Trade_Statistics/Yearly/Country_HS_Results.aspx?Report=By_Country) (검색일 : 2021.4.5).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입 감소와 많은 상품 및 물품의 부족은 생산부문이 늘 무시되는 레바논 경제의 운용 방안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방안이나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세 및 수입관세 감소, 세금 사기 또는 탈세, 정부의 납세 유예 결정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국내 공공자원이 감소하면서, 레바논 정부가 치솟는 공공부채를 부담할 능력에도 무거운 압박이 가해졌다. 이와 같은 공공자금 및 정부의 여신 부족은 다시 수입 연료의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불안정한 휴대폰 신호와 잦은 정전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손실은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최근 허용한 납세 유예로 인해 2021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까지의 세입과 2019년 동기간의 세입을 간략하게 비교한 <표 2>를 통해 공공세입의 감소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표 2> 레바논의 세입 현황(2019~2020년)

(단위: 백만 레바논 파운드(LBP), %)

세입 내역	~2019년 8월	~2020년 8월	증 감(%)
소득·수익 및 자본에 부과되는 세금	4,052,611	3,384,021	-16.50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내국세	2,895,564	1,622,547	-43.96
수입 관세	1,288,454	844,178	-34.48
기타 세입	383,048	289,343	-24.60

자료: 레바논 재무부 자료(<http://www.finance.gov.lb/en-us/Finance/EDS/FP/Pages/default.aspx>)를 활용  
해 필자 정리.

## ■ 코로나19가 레바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레바논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공식적인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러 곳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임금 자료뿐 아니라 고용 및 실업 수치도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 신뢰도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중앙통계청(CAS)은 국제노동기구(ILO) 베이루트 사무소와 협력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sup>7)</sup> 2018년 후반 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179만 4천 명이었다(이 중 21.3%는 외국인이고, 3.5%, 즉 5만 5,100명은 복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노동력은 취업자와 실직자로 나뉘며, 그 수는 각각 159만 명과 20만 4천 명이었다. <표 3>은 2018년 후반의 취업 및 실업 수치를 상세히 보여준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 17일의 반정부 시위와 경제 붕괴가 시작되기 7개월 전인) 2019년 3월까지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국가 경제에 닥칠 위기(청년실업 증가)와 마비 상황의 조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24세 실업률은 2012년 18%에서 2018

7)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Labour Force an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8-2019 Lebanon*.

<표 3> 2018년 취업 및 실업 현황

(단위: 명)

주요 경제활동인구 지표	여성	남성	남녀 합계	15~24세	25세 이상
<b>15세 이상 인구</b>	1,933,000	1,744,000	3,677,000	846,000	2,831,000
경제활동인구	566,000	1,288,000	1,794,000	331,000	1,463,000
취업자	485,000	1,105,000	1,590,000	254,000	1,336,000
실업자	81,000	122,000	204,000	77,000	126,000
비경제활동인구	1,367,000	516,000	1,883,000	515,000	1,369,000
<b>노동저활용</b>	128,000	174,000	302,000	104,000	198,000
시간 관련 저활용	9,000	22,000	31,000	5,000	26,000
실업자	81,000	122,000	204,000	77,000	126,000
잠재노동력	38,000	29,000	67,000	21,000	46,000

자료: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Labour Force an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8-2019 Lebanon*.

년 23.3%로 급증했다. 이는 시리아 난민의 유입과도 관련이 있는데,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2017년 후반 이후로도 시리아 이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리아에서 유입되는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은 레바논 청년의 실업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베이루트 소재 민간 리서치 기관이 발표한 바 있는 이민자 수가 2018년 3만 3천 명에서 2019년 6만 6천 명으로 두 배 증가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림 4]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상반기 6개월에 대한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통계는 노동시장이 취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신규 취업자와 최근 실직자 수의 차이가 항상 양수였으며, 이는 NSSF에 등록된 신규 취업자의 수가 등록 해지된 임금노동자의 수보다 늘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의 차이는 지난 3년간 점차 줄어들더니, 레바논에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한 시기인 2020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9,012명)를 기록했다. 비교하자면, 2017년 상반기에 NSSF에 등록된 신규 취업자 수는 5만 2,682명, 퇴직으로 인해 등록 해지된 자는 4만 200명으로 등록자 수가 1만 2,482명 증가했다.

현재 취업자 수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사용자가 NSSF에 신고하지 않은) 비공식 노동시장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코로나19의 파급효과, 베이루트항 폭발사건, 공식 통계와 민간 연구 결과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레바논에서는 비공식 고용의 비중이 공식 고용보다 높다.

자유로운 비공식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이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수입에 의존하는 레바논 국민과 그 가족에게는 봉쇄기간이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신뢰할 만

<표 4> 부문별 비공식 및 공식 고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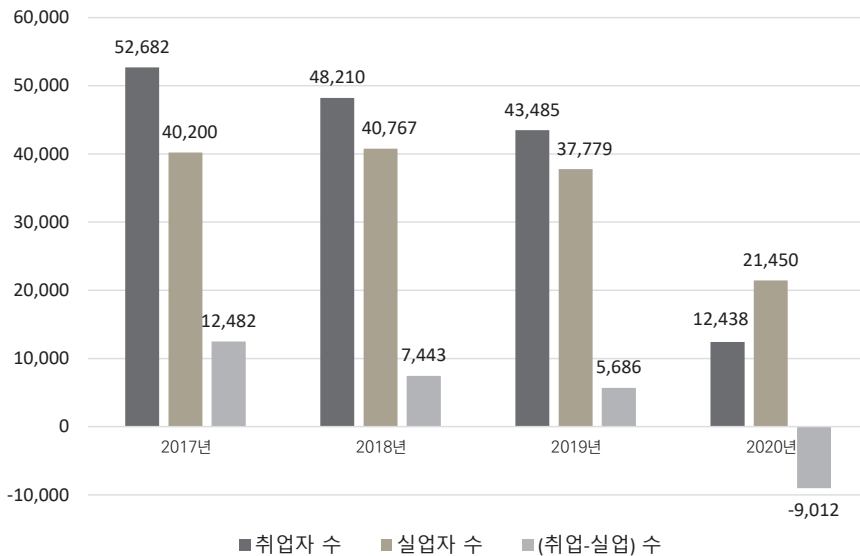
(단위: %)

고용	부문		
	비공식	공식	계
비공식	99.9	30.5	54.9
공식	0.1	69.5	45.1
계	100	100	100

자료: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Labour Force an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8-2019 Lebanon*.

[그림 4] 최근 4년간 상반기 NSSF 등록 및 해지자 수

(단위: 명)



자료: Al-Akhbar.com(2021.2.22), “انهيار في الوظائف والعمل”, <https://al-akhbar.com> (검색일: 2021.4.3).

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민간 연구 결과에 의하면,<sup>8)</sup> 현재 약 45만 명이 실직 상태에 있으며, 금융 위기가 심화되고 환율 붕괴가 지속되며 일부 부문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면 이 수치는 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위축되는 이민자의 수도 전례 없이 늘어날 것이다. 2020년 신규 이민자 수는 1만 7,700명에 그쳤으며 레바논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수치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공황이 폐쇄되고 새로운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요소가 없었다면, 레바논은 10만 명 이상의 이민자, 즉 10만 명의 유용한 노동력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팬데믹은 각 경제부문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앞서 언급한 바 있는 ESCWA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 민간부문의 고용은 2019년에 비해 전일제 기준으로 23% 감소했다. 건설업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문으로 40%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그 뒤를 숙박·음식점(-30.9%), 제조업(-26.7%), 도소매업(-23.9%)이 이었다. 반면에 운송업은 미미하지만 0.9%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동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세 및 소기업의 전일제 수요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영세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전일제 노동자의 50%와 20%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기업보다 매출도 낮았고 그 결과 전일제 노동자 해고율도 2배 높게 나타났다. 2020년에 비수출기업의 전일제 일자리는 30% 이상 감소한 반면, 수출기업은 예상보다 해외 수요가 많았던 덕에 전일제 노동자의 14%를 해고하는 데 그쳤다.

## ■ 결론

레바논은 전례 없이 심각한 경제 및 금융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데다가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로 인한 참담한 후유증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국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독특한 사례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8) Al-Akhbar.com(2021.3.10), "166 عاماً لتعويض الوظائف المفقودة!", <https://al-akhbar.com/> (검색일: 2021.4.6).

---

환율 붕괴, 은행업의 약화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전무후무한 폭등과 같은 전반적인 금융 위기 현상들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분명 레바논의 경제 침체 및 사회·정치적 혼란을 가속화했다. 레바논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차 산업은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부문이다. 도소매업, 운송업, 숙박·음식업 등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매출이 급감하였다. 전 세계 공항이 폐쇄되면서 관광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국제 무역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출입도 감소했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입도 소득세와 수입 관세의 감소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인해 줄어들었다. 팬데믹으로 레바논의 노동시장 상황도 악화되었다. 코로나19 억제책은 기업의 장기간 영업 중단을 의미했으며 이는 급여 삭감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무급 노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공식 민간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용은 모든 부문에서 감소했지만 특히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에 관한 자료가 드물기는 하지만, 봉쇄기간과 야간 통행제한 조치가 시간당 및 일당 수입에 의존하는 비공식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었음은 분명하다. **KLI**

---

---

## 참고문헌

---

---

- 레바논 세관 데이터베이스, [http://www.customs.gov.lb/Trade\\_Statistics/Yearly/Country\\_HS\\_Results.aspx?Report=By\\_Country](http://www.customs.gov.lb/Trade_Statistics/Yearly/Country_HS_Results.aspx?Report=By_Country) (검색일 : 2021.4.5).
- 레바논 재무부, <http://www.finance.gov.lb/en-us/Finance/EDS/FP/Pages/default.aspx> (검색일 : 2021.4.2).
- Al-Akhbar.com(2021.2.22), “انهيار في الوظائف والعمل”, <https://al-akhbar.com> (검색일 : 2021.4.3).
- \_\_\_\_\_(2021.3.10), “عاماً لتعويض الوظائف المفقودة 166!”, <https://al-akhbar.com/> (검색일 : 2021.4.6).
-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Tables 2004-2019”, <http://www.cas.gov.lb/> (검색일 : 2021.4.2).
-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Labour Force an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2018-2019 Lebanon*.
- Elnashra.com(2020.4.9), “تقيب أصحاب المطاعم: القطاع السياحي اللبناني يخسر 500 مليون دولار شهري”, <https://www.elnashra.com> (검색일 : 2021.4.3).
- ESCWA(2021.2.10), *Lebanon's Formal Private Sector : the Bitter Reality of 2020*.
- Humanitarian Data Exchange, <https://www.data.humdata.org> (검색일 : 2021.4.3).
- Human Rights Watch(2020.4.8). “Lebanon : Direct COVID-19 Assistance to Hardest Hit”, <https://www.hrw.org/> (검색일 : 2021.4.2).
- Lebanon24.com(2020.11.30), “الف موظف انضموا لنادي العاطلين عن العمل.. تحذير من أعمال شغب وانفجار اجتماعي 80”, <https://www.lebanon24.com> (검색일 : 2021.4.3).